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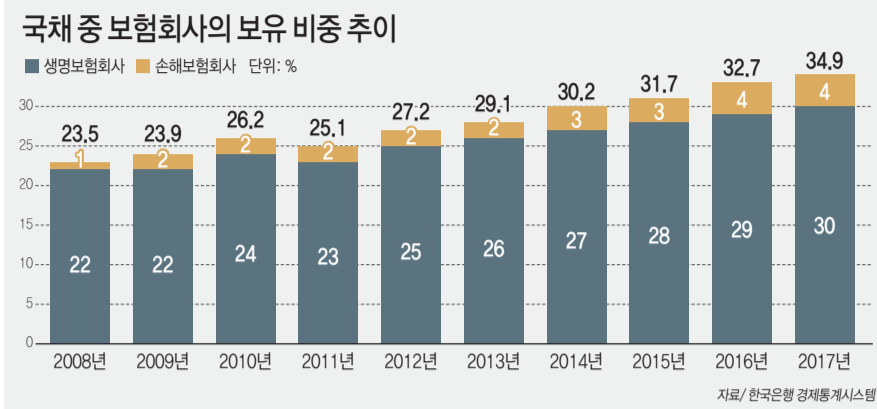
# 국고채 투자 늘리니 금리 하락... 보험사 '수익률 딜레마'

저금리 장기화에 악순환 이어져  
근본적인 해결책 뚜렷하지 않아  
보장성보험·해외투자 등 활용해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들이 국고채 투자를 늘리면서 국채금리를 하락시키는 '금리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7일 '보험사의 금리 딜레마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금리가 보험사의 국채투자를 촉진하고 보험사의 국채투자 증가는 다시 금리를 하락시킨다"며 "이런 현상이 보험사의 자본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08년 12월 4.87%에서 올해 3월 1.95%까지 하락했다. 2008년 말에는 만기가 길수록 국



채금리가 높아지는 '우상향(Upward-sloping) 기울기'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만기와 무관하게 국채 수익률이 '평탄한(Flattening) 기울기'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보험부채 증가에 따른 자산 확대 영향으로 보험사의 장기국채 수요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보험사의 전체 자산규모는 2008년 말 354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155조원으로 연평균 13% 가량 늘었다. 이 기

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사 총자산의 비율은 35.5%에서 64.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산이 늘자 보험사들은 국채보유 규모를 2008년 말 80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253조원으로 늘렸다. 같은 기간 GDP 대비 보험사 국채보유 비중은 7.3%에서 14.2%로 높아졌다.

보험사는 국채시장에서 국채보유 비중이 가장 큰 기관이다. 실제로 국채 투자

자는 금융법인이 66.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보험사가 국채보유 비중을 확대한 영향이 크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자산 증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보유를 늘리면서 반대로 국채금리가 하락하게 되는 '금리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보고서는 "향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K-ICS가 도입될 경우 국내 보험사, 특히 생명보험사의 '듀레이션 갭'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K-ICS 도입으로 요구자본 산출 방식이 보험부채 실제 현금흐름의 만기확대, 시장금리에 기반을 둔 할인율 적용, 금리 충격 시나리오 방식 도입 등으로 강화되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보유한 보험계약자의 계약 유인을 제한해 해약률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듀레이션 갭을 추가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어 보험사는 저금리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보험사의 경우 현재의 금융환경에서 금리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차선책으로 보장성보험 비중확대, 파생금융상품, 해외투자 또는 대체투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보고서는 "파생상품, 해외투자, 대체투자 등은 보험사가 금리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국채투자 증가가 국채금리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K-ICS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가맹점 수수료론 한계... 지급결제생태계 구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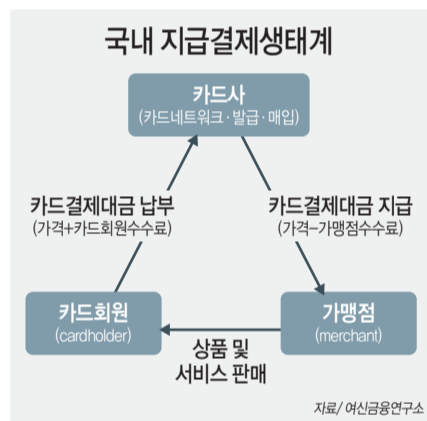
여신협, 카드사 상생방안 보고서

국내 카드사 수익성 지속 악화  
핀테크 협력 등 효율성 제고

최근 정부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에 따라 카드사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카드 산업 구성원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지급결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연구원은 '국내 지급결제생태계 발전을 위한 카드 기반의 상생협력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 카드브랜드와의 협업에 기초한 사업전략을 참고해 국내 카드사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비자카드는 지난 2016년 기존 카드사가 가진 상거래 네트워크를 확장한 '비자 커머스 네트워크(Visa Commerce Network)'를 출시했다. 가맹점의 신규 수익을 창출하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비자카드를 이를 통해 하루 약 1억5000만 건에 달하는 거래를 달성하는 한편, 거래가 발생하는 가맹점 간 고객을 연계해 비자카드와 제휴하는 가맹점의 신규



수익 확보에 기여했다.

실제로 비자카드가 해당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차량공유업체 우버 고객을 대상으로 음식점 할인쿠폰을 제공한 결과, 음식점의 신규 고객이 두 자릿수로 증가함과 동시에 카드 수수료 수익도 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해외 주요 카드사인 마스터카드도 데이터분석 컨설팅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가맹점의 고객 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이에 마스터카드의 빅데이터를 제공 받은 가맹점은 구매고객의 소비행동패턴, 재고 자산회전율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이어 국내 카드사와 핀테크 업체가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을 강

조했다.

핀테크 업체는 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해 가맹점 및 고객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지녔다는 점에서 국내 카드사가 가맹점 및 고객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미국의 핀테크업체 '페이심플'은 POS에 고객관리 기능을 접목한 플랫폼인 sPOS(software POS)를 개발해 해당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각종 가맹점이 구매고객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연구소는 국내 카드사가 핀테크 업체와 협업해 미국의 페이심플과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면 가맹점 매출 관리, 카드사용내역 자동알림 등 각종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민지 여신금융연구원 연구원은 "국내 지급결제생태계의 연결고리를 유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선 카드사를 중심으로 부가가치통신망사(VAN)·소액결제대행사(PG), 가맹점, 카드회원이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동반성장을 위해선 구성원 전원이 상생하는 관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박찬혁 한화생명 브랜드전략 팀장(세번째줄 왼쪽 다섯번째)이 지난 6일 일산 킨텍스에서 한화생명 한화해피프렌즈 14기 청소년들과 발대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 한화생명, 해피프렌즈 봉사단 발대식

9개 지역 고등학생 280명 구성  
문제 탐색·해결법 찾는 봉사활동

한화생명은 한화해피프렌즈 봉사단이 지난 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발대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한화해피프렌즈 14기 봉사단은 전국 9개 지역(서울, 인천, 성남, 춘천, 충북,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고등학생 270명으로 총 28개의 팀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은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시선'을 슬로건으로 1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봉사단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기존의 봉사활동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골목길 가로등 설치', '응원

족지 캠페인' 등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주변의 사회문제를 탐색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봉사활동이 진행된다.

한화생명은 청소년들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해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수행하는데 멘토링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콘텐츠 능력 함양을 위해 별도의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최우수 팀은 대표이사 명의의 기업표창과 시상이 주어진다.

한편 한화생명 한화해피프렌즈 봉사단은 2006년 창단한 후 13년간 총 4798명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김희주 기자

##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등 보관해두세요”

금감원 Q&A

현장 보험 활용법

Q. 지난주 작은 접촉사고를 겪게 됐습니다. 무사히 해결하긴 했지만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해 머릿속이 하얘져 교통사고 처리법을 미리 알아둘 걸 후회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대처하는 방법과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꿀팁'을 알려주세요.

A.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미리 차량에 보관해뒀다가 사고 발생 시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사고 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 정보 및 피해 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기입란이 마

련돼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조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데 호송을 하거나 긴급조치에 지출되는 비용은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차를 옮길 때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사고현장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견인차량 번호와 견인영수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행여나 부당한 견인요금이 청구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하는데 필요합니다. /김희주 기자

## 금감원,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인증 통과 땀 각종 교육강사로 활동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교육을 25회 이상 실시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금감원에서 실시한 전문강사 양성

인수를 수료했다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필기시험(40점)과 강의평가(60점)로 이뤄진다. 합산점수가 80점이상이면 강사로 인증한다.

인증을 통과한 전문강사는 금융회사 등의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